아메리카잎굴파리 기생봉, *Neochrysocharis formosa*(Westwood)의 발육과 산란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

최선우, 문형철, 김주희, 정성수, 류 정, 최정식, 최영근, 황창연[1]
전라북도 농업기술원, [1]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

아메리카잎굴파리의 천적인 *Neochrysocharis formosa*는 기주유충 내부에서 기생하다가 종령유충 단계에서 기주로 부터 탈출하여 용이 되는 특성을 보였다. 본 실험에서는 온도에 따른 *Neochrysocharis formosa*의 발육과 산란특성을 조사하였다.

난에서 용까지의 온도별 발육기간은 각각 20℃에서 9.4일, 25℃에서 5.2일, 30℃에서 4.0일이었고, 난에서 성충 우화까지의 온도별 발육기간은 20℃에서 20.3일, 25℃에서 12.5일, 30℃에서 8.8일로 용기간이 길었다.

암·수별 성충수명은 20℃에서 각각 20.0일과 5.2일, 25℃에서 16.7일과 2.9일, 30℃에서 10.7일과 2.2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온도별 산란전 기간은 20℃에서 0.6일, 25℃에서 0.1일, 30℃에서 0.1일로 우화직후부터 산란이 시작되었다.

30℃에서 성충 1마리의 차세대 우화수는 102.9마리였으며, 수컷비율이 높았다.